

# 近代初期 韓·中 小說의 新女性 形成 過程 比較

- 羅蕙錫의 「경희(瓊姬)」와 冰心の 「두가정(兩個家庭)」을 중심으로 -

孫 美 玲<sup>1)</sup>

## 目次

### I. 序論

### II. 新女性の 時代の 背景

1. 近代初期 女性運動
2. 新女性の 登場

### III. 近代初期의 性別 意識

1. 新女性 像
2. 男性의 視線

### IV. 教育을 통한 女性主體 形成 過程

1. 經濟主體로서의 新女性
2. 賢母良妻로서의 新女性

### V. 近代初期 新女性の 限界

### VI. 結論

### 參考文獻

## I. 序論

20세기 초 한국과 중국은 식민지와 반식민지시대로 두 나라의 사회는 무척이나 혼란한 상황이었으며, 양국 모두 비슷한 시기에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봉건사회로부터 근대<sup>2)</sup>로 이행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근대화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을 받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자기구원 의식이 자각되기 시작하였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에 반기를 들고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신여성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여자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 하였다.

근대 초기 한국의 나혜석과 중국의 冰心은 신여성으로써 당시 가부장적이면서 봉건적인 사회에서 여성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문제들을, 교육과 의식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성 유학생으로,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최초의 소설가·시인·희곡작가·수필가·페미니즘 비평가 등등 말 그대로 여성의 선각자이다.<sup>3)</sup> 나혜석의 「경희」는 작가의 삶이 그대로 반영된 자전적

1)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2) 근대란 안정 속에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회 문화 구성을 형성하는, 즉 다양한 분야의 변화 요인들은 총합해가는 과정이다. 이는 여덟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생산 체계가 산업화 되는 것, 두 번째는 개인 간의 관계가 합리적·계산적으로 되기 쉽다 것, 세 번째는 인간 노동을 포함한 육체적·사회적 사물이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 된다는 것, 네 번째로는 국가의 통제가 사회적 성격을 벗어나 사회적 역할로 특정화 된다는 점, 다섯 번째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 여섯 번째는 합법성과 책임의 일시적인 소재를 개인에 두게 되는 것, 일곱 번째는 개인이나 사회생활에 맞서 미·도덕성·진실과 같은 문화적 가치의 영역들이 자율화 된 점, 마지막으로 가족·학교·정부·기업·교회·민간단체 등의 사회적 단위들이 서로 분리, 구별하거나 차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재교, 박의경 책임편집,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청어람미디어, 2004년, 38~39쪽, 재인용

3) 한국의 근대 여성문학은 나혜석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여성 선각자였다. 이상경, 「여성작가 소설에서 여성상이 드러나는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과 여성』, 아세아문화사, 2000년, 142쪽.

소설로, 경희는 여성도 인간이라는 자각과 함께 남성과 동등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고 자립을 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렇듯 경희가 봉건적 가치관에 과감히 반기를 들었다는 것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자립성 여부에 두고 이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인식이었다.

氷心은 중국 현대문학사상 유명한 여류 작가이다. 소설 「두가정」은 대비의 수법을 사용하여 두 가정에 대한 좋고 나쁨을 통해, 좋은 가정의 아내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가정의 차이는 여자 주인공의 문화적 차이, 지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여성이 깨기 위해서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것은 상당히 근대적인 접근이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과 중국은 다른 문화적·역사적 상황 속에서 근대로 들어섰다. 근대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 여성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새로이 교육을 받은 여성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들 중 한국의 나혜석과 중국의 氷心은 근대 교육의 최초의 수혜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유학하면서 여성 해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성도 인감임을 알리기 위해 소설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물론 이들이 소설 중에 말하고자 하는 신여성상은 여러 방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가부장제에 의해 왜곡된 여성성의 회복, 남녀 평등사상,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의 권리신장 등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여성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체가 아니라 남성 주체와의 관계에서만 위치가 규정되는 부차적인 존재로 규정되어왔다. 이러한 남성위주의 상황에서 그들은 신여성을 등장시켜 구시대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신여성의 위상을 드높이면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에도 부흥하는 현모양처형의 삶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신여성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며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신여성상은 남성위주의 사회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사회 전반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정에서의 여성 또는 주부로서의 역할만을 중요시하며, 좀 더 근대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sup>4)</sup> 그러나 이것은 근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여성 스스로 뿐만 아니라 남성도 시대의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다. 당시 여성들이 여성의 권리에 대해 말 한 것은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도전이며 반항으로 여성의식의 일대 진보이며, 신여성들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성 지위를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로 이행되는 초기 단계에서 같은 시간적 배경,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라는 다른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소설 속에서 신여성 형성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였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등을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근대 한·중 소설, 나혜석의 「경희」와 氷心の 「두가정」을 중심으로, 근대 초기 격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이 신여성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비교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중국 근대 초기 여성운동의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이들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난 성별의식 즉, 당시의 신여성상은 어떤 형태였는지, 또한 이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각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여성이 교육을 통해 경제주체·현모양처로서의 여성주체로 형성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가운데 부딪히는 신여성의 한계는 무엇 이었는지, 근대 초기 신여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주체를 형성해 나갔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4) 그러나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교육의 필요성과 남녀평등의 제창은 주로 가정개조를 위한 신현모양처의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남편의 사회 생활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아내와 가정에서의 여성이 이상적인 모델이기도 하였다. 가정개조를 위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들 작품은 당시의 여성교육에 대한 여성계의 관심과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작가 자신의 편협한 시야를 일정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II. 新女性の 時代的 背景

### 1. 近代初期 女性運動

한국의 1920~30년대는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시대였다. 일제의 토지 수탈과 경제의 침략 및 노동력의 착취 등으로 극도의 빈궁에 빠져 실항민과 이민이 급격히 늘어난 궁핍의 시대였다. 뿐만 아니라 농촌경제 파탄에서 오는 가족 붕괴와 그 경제적 파탄을 막아내기 위한 가족제도의 강화라는 악 순환 속에서 여성 문제는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 되었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처지는 가난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남존여비의 봉건적 사고아래 더욱 열악하였다. 농촌 여성의 결혼은 대부분은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으며 결혼 후에도 여성은 절대적으로 남성에게 종속 되었다. 이에 여성은 끝없이 이어지는 노동과 남성중심의 봉건 가족 제도의 이중적 억압 속에서 허덕여야만 했다.

한편 서구의 여성해방 이론을 수용하게 되면서 당시 한국에서 근대적 여성 교육의 요구는 사회적으로나 여성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점차 높아져 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여성학교가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여성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문맹퇴치나 직업지도 등으로 여성은 여성문제의 자각과 의식을 일깨우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신교육을 받은 여성과 받지 않은 여성 사이에는 사고력이나 일상생활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은 가정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쳐 근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1910년대 일제 식민 지배를 받던 한국은 평등지향을 강하게 갖는 여성들이 일본과 미국에 유학함으로써 여권운동에 대해 새로이 눈을 뜨게 되었다. 특히 1919년 3.1운동에서의 여성들의 활약은 여성들을 더욱 각성시켜 여성에 의한 여성운동이 『新女子』라는 여성 월간지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sup>5)</sup> 이시기의 여성 운동은 결혼과 이혼, 성과 사랑, 개인과 집단(가족), 자유와 평등, 외모와 육체에 대한 감수성, 소비와 유행, 핵가족 이념과 현모양처, 위생과 과학 같은 주제들이 신여성이라 불린 여성들을 매개로 떠오르며 논박되었다.<sup>6)</sup>

그리고 중국도 1840년 阿片戰爭 이후 열강들의 침략에 의하여 반식민지 상태가 되었으며, 1911년 辛亥革命 이후 정국은 더욱더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sup>7)</sup> 그러나 20세기 초 서구 문화의 영향아래 경제적·정치적 변화의 결과로 여성은 새로운 사회적 존재로 부각하게 되었다. 특히 1919년에 폭발한 5·4운동은 정신적으로 수천 년 동안 통치해 온 舊思想을 비판하면서, 여성 해방을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이에 여성들은 끊임없이 사상을 해방하고 경제권을 위해서 투쟁 할 때만이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 사회의 해방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여성의 해방도 함께 올 수 있다고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이시기의 여성 해방운동은 중국 근대 여성해방운동의 서막을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여성 문제를 사회 문제의 역사적 궤도에 올려놓았다 할 수 있다. 이에 유신파들은 여성문제를 애국준망과 연관시켜 활발한 진족 폐지, 여성교육의 강화와 학보 발간을 통한 여성 계몽운동을 전개 하면서 중국근대 여성해방운동의 第一高潮期를 형성하였다. 이 후 20세기 초 부르주아 지식인의 출현과 민주 사상의 전파를 배경으로 辛亥革命 전후에 제 2차 고조기를 맞이하였으며, 5·4운동에 제3차 고조기를 맞이하였다.<sup>8)</sup>

중국의 위기를 구하려는 자산계급개량파와 혁명파를 비롯한 많은 知人들의 목소리는 집안에서 잠자고 있던 여성의 의식을 일깨웠다. 국내의 잡지와 신문들은 제국주의 침략에 반항하여 싸우는 여성운동의 소식들을 폭 넓게 기재하면서 전통적인 울타리를 뛰쳐나와 救國救民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孫中

5) 『신여자』는 주로 일본유학생으로 귀국한 나혜석·許英蕭등과 미국 유학을 한 김활란, 국내에서 신교육을 받은 정 중명 등이 중요 필진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들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다양하게 주장하였고, 이 운동은 1920년대 신여성운동의 길라잡이가 되었다. 박용옥, 「1920년대 신여성 연구」, 『여성연구논총』,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01년, p. 10.

6) 김수진, 「신여성담론 생산의 식민지적 구조와 「신여성」」, 『경제와 사회』 69권, 한국산업사회학회, 2006년, p. 256.

7) 申昌順, 『韓·中 小説의 女性形象 比較研究』, 成均館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4年, p. 13~25.

8) 呂美頤·鄭永福, 『中國婦女運動(1840~1921)』, 河南人民出版社, 1990年, p.15.

山·蔡元培와 같은 선구자들은 여성 문제를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연결시켜 봉건예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여성의 평등·자유·권리와 의무를 부르짖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였다.<sup>9)</sup> 다시 말해 이시기의 여성운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 여성의 권익을 쟁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sup>10)</sup>

이로 인해 중국은 여자학교를 건립하기 시작했고, 교육을 받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관비로 미국·일본 등지로 유학하는 여학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 후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서 국력을 과시하기 시작하였고, 남성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인 여성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상류층이어서 숫자적으로는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뿌리 깊은 봉건의식은 사회의 곳곳에 잔재하면서 여전히 여성의 삶을 억압하였다.

이렇듯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한·중 두 나라의 사회현실은 비슷한 상황이었다. 한국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억압을 받았으며, 중국 역시 열강들에 의한 침략으로 半殖民地화로 되었던 데다가 봉건군벌들의 폭동·국민당과 공산당간의 분열 등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부패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양국 모두 비슷한 시기에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서양의 여성해방 이론을 수용하여 남녀평등을 제창하고 여성의 자주권과 해방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선진 인텔리들은 서구의 이론을 가지고 수 천년동안 동양사회를 통치해 온 유교 사상 중 여성관에 그 비판의 초점을 두었다.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라 많은 여성들은 집에서 나와 사회에 진출하였으며, 여성 중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기구원의식이 자각되기 시작하였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에 반기를 들고 도전하기 시작하였다.<sup>11)</sup>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 2. 新女性の登場

신여성 현상은 19세기 제국주의의 확대 이래 영국을 비롯한 서구 전반과 일본 그리고 식민지 아래에 놓였던 제3세계 일반에 확산된 범세계적인 현상이었다. New Women, 신여자, 신여성, 모던걸 등으로 불리며 각국에서 논의 되던 신여성 현상은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정치적·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관습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 되었다.<sup>12)</sup> 한국과 중국의 경우 식민지·반식민지라는 상황에서 유교적 가부장적인 독특한 전통과 결합하면서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고유의 양상을 나타나게 된다.

신여성의 등장은 단지 몇몇 개별 여성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의 사회적 범주를 형성하게 되었다는데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사회 구조적인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sup>13)</sup> 첫째, 신여성을 ‘다른 여성’들과 구별 짓는 주요한 특징은 이들이 ‘교육받은 여성’이라는 점이었다. 둘째, 신여성의 등장은 근대 여성해방의식의 태동과 성장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셋째, 교육을 받은 여성, 여성 해방의식을 가진 여성의 등장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공적 영역의 진입과 사회진출의 가시화로 나타난다.<sup>14)</sup> 하지만 누구를 신여성이라 칭하였고, 그렇게 불린 이들은 어떠한 사회 범주에 속하

9) 유련화, 「中國近代의 女性先驅者秋瑾의 女性解放思想과 革命活動」, 『中國史研究』 49호, 중국사학회, 2007, p. 221~223.

10) 金垠希, 「1920년대 중국여성문학과 대중매체」, 『中國語文學誌』 11권, 중국어문학회, 2002년, p. 268.

11) 申昌順, 앞의 논문, p. 25.

12) 서은하, 『신여성 나혜석의 근대적 자아 정체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 p. 28.

13) 다른 관점으로 당시의 신여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의 범주로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 둘째, 자아인식이 강한 여성, 셋째, 사회적으로 자기 성취욕이 강한 여성, 넷째, 식민지 여성으로 민족문제에 관심을 갖고 운동에 참가한 여성, 다섯째, 현모양처에 대한 환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송희, 「신여성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 『여성연구논집』 제17집, 2006년, p. 171.

14) 이명선,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2003년, p. 11~15.

였는가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에서 신여성이란 용어는 1920년 여성지 『신여자』가 창간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후 『신가정』·『신여성』·『여성』·『부녀세계』·『현대부인』·『망국부인』 등의 여성잡지가 발간되었고, 『신여성』 잡지에 기술된 신여성상을 보면 “신여성은 지식을 갖추고 평등의식이 싹트는 단계이며 구식여성보다 의지가 월등하고 의지를 실천하는 힘이 다르다.”라고 하였다.<sup>15)</sup>

중국의 경우 20세기 초 부르주아 민주혁명의 선전활동이 전개되고 지식여성 집단이 출현함에 따라 상해·동경 등에서 혁명의 영향을 받은 지식여성은 여성신문과 잡지를 창간하였다. 그 중 1926년 상해부녀문제 연구소에서 『신여성』 잡지가 창간되면서 이전에는 부인이나 부녀 등의 명칭에서 신여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up>16)</sup>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통용되는 신여성이란 명사는 전통적으로 많이 쓰인 부녀(婦女)라는 개념을 대신하여 women의 역어인 여성에 새롭다는 의미의 신을 접두어로 붙인 것이다. 전통적 가족제도를 부정하고 단발 등 외모상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지향을 가졌다고 설명 할 수 있다. 신 여성은 또한 반봉건의식, 애정과 결혼에서의 진취성, 자유·평등·박애를 숭배하는 인도주의자라는 의미의 모던걸(modern girl)의 역어로 볼 수 있다.<sup>17)</sup>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한국과 중국의 신여성은 교육을 받고,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 반봉건적이며, 애정과 결혼에서의 진취성, 자유·평등·박애를 숭배하는 인도주의자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나의 삶이 걸작이 되고 싶어요!’ 라고 외쳤던 신여성 晶月 나혜석은 근대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근대 최초의 여성 작가이다. 그녀는 화가로서의 면모에 비해 작가로서 또는 여성해방론자로서의 면모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실제로 신여성으로서 나혜석을 주목하게 된 것은 한국 근대문학이 한창 발아하던 1918년 3월에 발표된 중편소설 「경희」가 발굴되면서 부터이다. 나혜석은 동경 유학 후 한국 근대 사회 여명기에 ‘신여성’으로 귀국하여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그녀의 글쓰기는 여성도 남성과 차별 없는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여성의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여성도 교육을 통해 합리적 이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제도와 관습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18)</sup>

氷心은 신여성이며, 중국 근대문학 초창기의 대표적 소설가의 한 사람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으면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sup>19)</sup> 그녀는 1919년 첫 번째의 소설인 「두가정」을 출판한 뒤로 연이어 인생문제를 탐색하는 이른바 ‘問題小說’을 내놓는다. 「두가정」은 氷心の 계몽의식이 전면에 부각된 작품으로서, 여성이 ‘女權’이니 ‘平等’이니 하는 말들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가정위생’이라든가 ‘취업여성’같은 실용적인 해결법을 통해 여성을 계몽하고 가정을 개량하자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sup>20)</sup>

이처럼 나혜석과 氷心은 근대초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신교육을 받았고, 유학과 출신이다. 이들은 당시 신여성으로 등장하여 여성의 선각자로서 소설을 통해 여성도 깨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 III. 近代初期의 性別 意識

#### 1. 新女性 像

여성으로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 이외에도 사회와 남성의 요구에 의한 규정된 역할을

15) 문옥표외 지음, 『신여성』, 청년사, 2003년, p. 22.

16) 중화전국부녀연합회 편, 박지훈외 2인 공역, 『중국여성운동사 상』, 한국여성개발원, 1991년, 54쪽, p. 308

17) 윤혜영, 「20세기 중국 신여성의 고뇌 : 혁명인가 여권인가」, 『성평등 연구』 10호, 카톨릭대학교 성평등 연구소, 2006년, 33쪽

18) 김길연, 『나혜석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 p. 1.

19) 卓如, 『氷心文集』, (福州:海峽文藝出版社, 1999年), p. 9~10.

20) 黃允貞, 『氷心の 初期 短篇小説에 나타난 女性形象 研究』, 淑明女子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06年, p. 12.

담당해야 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므로 남성이 여성에게 통제력과 지배력을 행사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고 의존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이처럼 문화적 성차별주의는 당시 일상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 성을 이분화하고 우열로 구분 지었다.

그러므로 여성이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다,’,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배우자.’라는 구호로 시작되었던 한국의 1910~20년대 새로운 여성상 찾기 운동은, 인고를 미덕으로만 여기던 옛 사상과 풍습을 탈피하고 여성의 인간적 삶을 되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었다. ‘신여성’과 ‘자유연애’라는 새 어휘들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장옷을 벗어던진 여성들은 책을 펴들었고 사회로 진출하였다.

반면 중국도 5·4운동 이 후 여성들은 여성 스스로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거의 모든 간행물에 여성 문제를 다룬 글들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이 후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되면서, 이러한 신여성들은 봉건 가정에서 꺾박받는 여성의 해방과 남녀평등에 따른 여권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의 근대 초기 ‘신여성’은 새로운 학문을 배운 여성을 일컫는다. 이들은 여성으로서 앞선 지식을 습득하고 근대화된 제도와 문명을 향유하면서, 집안에서만 붙잡혀서 자기의 이상과 능력을 실현할 수 없었던 구세대의 여성에서 벗어나려 하였다.<sup>21)</sup> 그러나 근대 초기 한국과 중국은 근대화로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여성들 대부분은 구세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구세대들은 신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신여성들은 그 당시 구세대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봉건적인 남성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나혜석은 최초의 근대 교육의 수혜자로서, 그리고 근대 여성 문학의 형성자로서 신여성의 일상생활을 포착하여 봉건주의가 신여성에게 가하는 다양한 편견과 압력, 그리고 그에 맞서는 여성의 자의식으로부터 그의 여성론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나혜석의 『경희』<sup>22)</sup>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여성으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은 크게 두 가지 여성의 형상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구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 즉, 사돈마님·떡장수와 과수댁 아주머니인데, 이들은 주인공 경희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교육받은 신여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된다. 두 번째로는 근대 초기 신여성인 경희로, 신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느질도 잘하고 부엌일도 잘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배운 공부를 생활에 적용시킬 줄 아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23)</sup> 다음은 구세대 여성인 떡 장수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여성, 즉 여학생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저의 집 떡 방아 찧던 일꾼에게서 들은, 요새 신문에 어느 여학생이 학교 간다고 나가서는 며칠 아니 들어오는 고로 수색을 해보니까 어느 사내에게 꺾임을 받아서 첩이 되었던란 말이며, 어느 집에는 머느리를 여학생을 얻어왔더니 버선 깎는데 울도 찾을 줄 몰라 모두 뺨뺨로 대었던란 말, 밥을 하였는데 반은 태웠던란 말, 날마다 사망으로 쪼다니며 평균 한 마디씩 들어온 여학생의 험담을 하려면 부지기수였다. <sup>24)</sup>

이처럼 구세대 여성들은 신여성인 즉 여학생에 대하여 가출하여 어느 집 첩이 되었다거나, 가정살림은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떡장수아주머니 등 일부 여성뿐 아니

21) 김길연, 『나혜석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 p. 23~24.

22) 소설은 전체 4부로 되어있다. 제1부에서는 사돈마님과 경희어머니의 경희에 관련된 대화를 통해서, 당시 여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돈댁이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제2부에서는 떡장수와 과수댁 아주머니가 경희가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들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여학생 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다. 제3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희의 혼사에 대해 의논하면서 딸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드러낸다. 제4부는 아버지가 추천한 명문대가 김판사댁 혼처를 거절하고 여자도 인간임을 선언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23) 류현영, 『나혜석 서사 연구』, 인하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년, p. 17.

24) 이상경편집, 『나혜석전집』, (서울:태학사, 2000년). p. 88.

라 남성, 그리고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신여성에 대한 편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혜석이 「경희」에서 의도한 바는 당시 신여성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없애는데 있었기에, 교육받은 여학생도 부지런히 가사 노동을 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경희는 앞치마를 치고 마루 끝에 서서 서투른 칼질로 파를 썬다.

“어느 틈에 김치 담그는 것을 다 배우셨어요,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작은 아씨는 도무지 노시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책을 보시지 않으면 글씨를 쓰시고 바느질을 아니 하시면 저렇게 김치를 담그시고……”

“여편네가 여편네 할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신통할 것이 있소.”<sup>25)</sup>

경희는 쉬지 않고 바지런하게 집안일을 한다. 그러나 경희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더 기뻐한다. 그러나 이렇듯 가사노동의 능동적인 수행을 통해 신여성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려고 한 것은, 교육을 통해 전근대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근대적 여성 주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혜석의 의지와는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혜석은 당시 사회에서 신여성이 일탈된 행동을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신여성은 전통적인 역할까지도 잘해야 한다는 ‘슈퍼우먼’의 전략을 사용하여 당시 현실과의 조화를 모색하여 하였던 것이다. 또한 신여성 경희는 구세대 여성과의 대립에서 직접적으로 전면에서 나서거나, 노골적인 설교투를 피하고 구체적 일상을 통해 이상적인 신여성상을 구현해 냄으로써 간접적 설득 효과를 구현하려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氷心은 「내가 소설을 쓴 데 어찌 비판이 있겠는가?」에서 그녀가 소설을 쓰는 목적은 “단지 사회를 감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구 가정의 불량한 현상을 묘사하여 사람들을 보다 잘 경각시키고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그녀의 「두가정」<sup>26)</sup>에 대한 작가의 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두가정」에서는 본받아야 할 가정과 불량한 가정이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일인칭 화자인 지식인 여성은 어느 날 이모님 댁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웃의 陳선생댁의 가정을 엿보게 되는데, 주부의 게으름으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에 반해 화자가 셋째 오라비의 가정에서 깨끗하게 정리 정돈된 집안, 상냥하고 정숙한 안주인의 활달한 환대, 가정교육을 잘 받은 조카아이의 환한 모습을 보게 된다.<sup>27)</sup> 氷心은 「두가정」에서는 근대 초기 여성의 신여성의 형상으로 亞茜, 구세대 여성의 형상으로 陳부인을 등장 시켰는데, 다음은 구세대의 인물인 陳부인의 형상이다.

陳부인이 고개를 돌려 왕어멈을 부르자 곧 어떤 늙은 하녀 하나가 머리빗을 들고 방에서 나오더니 그녀의 머리를 빗겨 주었다.(중략) 잠시 후 陳부인이 머리를 다 빗었다. 마침 세수를 하고 있을 때, 앞쪽 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다. 왕어멈이 가서 받더니 나와서 말했다. “마님 高씨 댁에서 빨리 오라고 하시네요. 마작을 하실 분이 다 모이셨대요.” 陳부인이 얼굴에 분을 바르며 “곧 간다고 이르께”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들어갔다.<sup>28)</sup>

25) 이상경, 『나혜석전집』, 앞의 책, p. 86~87.

26) 氷心의 「두가정」은 그녀가 協和大學 豫科 재학 중 쓴 작품으로 발표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킨 문제소설이었다 嚴家炎지음, 박재우역 『중국현대소설유과사』, 청년사, 1997년, p. 49.

27) 유인순, 「韓中小說에 나타난 女性의 正體성」, 韓中人文科學研究會권 7호, 2001년, p. 64~65.

28) 陳太太回頭叫王媽, 就又有個老媽子, 拿着梳頭匣子, 從屋里出來, 替她梳頭。(中略) 過一會子, 陳太太梳完了頭。正在洗臉的時候, 聽見前面屋里電話的鈴響。王媽去接了, 出來說: “太太, 高家來催了, 打牌的客都來齊了。” 陳太太一面擦粉, 一面說: “你說我就來。” 隨後也就進去。 高玉琪, 『現代文學名家名作文庫』, 「兩個家庭」, 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年, p. 420.

이처럼 게으른 陳부인은 가정일은 돌보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도 뒷전이다. 모든 것은 가정부에게 맡겼으며, 늦게 일어나서는 치장을 하고 놀음판에 가기 바빴다. 陳부인은 부잣집에 태어나 고생을 모르고 자란 구세대 여성으로, 서구 문물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문화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소설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모범적인 신여성 亞茜의 형상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亞茜은 너무 똑똑하고 일을 잘해. 대소사를 모두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니, 내가 보기에 그 애는 정말 너무 바쁘더라. 그런데도 亞茜이 한 번도 이일을 억지로 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다급해서 서두르거나 걱정하며 지친 것 같은 기색을 띠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늘 기뻐하고 여유가 있어. 그 아인 정말 사랑스러워!(中略) 게다가 亞茜은 매일 밤 어머에게 글자랑 『百家姓』 읽는 법을 가르쳐 이젠 어쩔도 명함에 있는 이름이나 장부에 있는 글자들은 꽤나 알아보게 되었단다.”<sup>29)</sup>

신여성 亞茜은 남편의 일을 도와 외국서적의 번역을 할 수 있고, 『百家姓』 같은 전통교재를 아랫사람에게 교육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절대 가족들에게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철인 여성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신여성의 표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氷心은 구세대 여성과 신여성의 대비를 통해 모범적인 신여성의 표본을 보여주려 하였다. 다시 말해 氷心이 그리고 있는 신여성상은 교육을 받았고, 집안에서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이 잘 키우고, 시부모님 공경하며, 헌신하는 가정주부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여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혜석이 그리고 있는 신여성상 또한 일정정도의 교육을 받고, 가정 내에서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배운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여성으로, 구세대 여성들이 신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기 위해 다재다능한 슈퍼우먼 전략을 사용하였다.

## 2. 男性의 視線

근대화 초기 한국과 중국에서는 교육을 받는 신여성이 등장하였지만 아직도 사회는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제였다. 이러한 것은 유교적 통치 이념인 충효의 윤리와 지배 복종의 신분사회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지배층은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일반화 되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들 작가들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남성이 신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인 형상과 부정적인 형상으로 구체화 되며, 이는 그 당시 신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들의 이상적인 신여성상으로서 ‘현모양처’가 담론에서 우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이상적인 전업주부의 조건을 제시 하였을 뿐, 남성과 동등한 사회인으로서 더불어 활동하고 평등한 의무를 가진 여성상은 아니었다.

천도교계 개혁적 지식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개벽』·『부인』·『신여성』의 주요 필자였던 이성환이 제시한 신여성 7덕을 살펴보자.

- ① 신여자는 지식이 있으므로 이해력이 있을 것. (기막히게 답답하지 않다).
- ② 위생 관념이 있을 것. (지저분하지 않고 정결한 것).
- ③ 가사 처리를 과학적으로 할 것. (가족 중 병자가 있을 경우 구여자는 미신을 따르지만 신여자는 병원으로 감).

29)母親說：“亞茜太過於精明強干了，大事小事，都要自己親手去做，我看她實在太忙。但我却從來沒有看見過她有一毫勉強慌急的態度，匆忙憂倦的神色，總是喜喜歡歡從從容容的。這個孩子，實在可愛！”(中略) 并且亞茜每天晚上還教她念字片和《百家姓》，現在名片上的姓名和帳上的字，也差不多認得一多半了。” 高玉琪，『現代文學名家名作文庫』，「兩個家庭」，北京：當代世界出版社，2004年，p. 426.

- ④ 신여자는 계산에 밝을 것. (구여자는 수입지출의 개념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신여자는 계산이 밝아 가정 일기 하나라도 쓴다).
- ⑤ 과학적으로 자녀 양육을 바로 할 것. (무식한 구여자는 지구가 도는 줄도 모르고 해와 달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신여자는 그런 거짓말을 안 한다. 구여자는 종두(種痘) 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신여자는 그와 반대다).
- ⑥ 신여자는 편지나 전보를 볼 줄도 알고 할 줄도 알 것. (구여자는 남편 출타시 오는 편지 가는 편지를 전부 남의 집 사내들한테 구걸한다).
- ⑦ 신여자는 일의 동무가 될 것. (구여자는 신문 한 장도 정리할 줄 모른다. 그러나 신여자는 원고도 써주고 장부도 정리하고 서물도 대독한다).

이것이 사회 변혁을 주장하던 신진 청년의 신여성관이다. 그는 독립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가정 살림을 하는 아내이자 동시에 남편과 지적교류를 하는 이상적인 여성을 신여성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30)</sup>

소설 「경희」에서는 신여성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희의 오빠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구세대인 경희의 아버지 이렇게 두 명의 남성이 등장한다. 소설 속 경희의 오빠인 당시 신진 지식 남성이 신여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경희의 오빠는 나혜석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남성의 형상으로, 부모님을 설득해 경희를 일본에 보내 공부를 권유하게하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진 지식인으로 그려진다. 실제로 나혜석이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도쿄에 유학중이던 오빠 경석의 권유에 의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구세대인 경희 아버지 이철원으로 그는 아들의 권유로 경희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등의 구세대에서 약간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구세대 봉건 가정의 가장으로써 경희를 자신이 고른 상대자와 결혼 시키려하나 신여성 경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들 갖는 등 여전히 구세대의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혼처는 꼭 놓치지 말고 해야지 그만한 곳 없소. 그 신랑 아버지 되는 자하고 난 전부터 익숙히 아는 터이니까 다시 알아볼 것 도 없고 당자(當者)도 그만하면 쓰지 별아이 어디 있다. 장자이니 까 그 많은 재산 다 상속될 터이고 또 경희는 그런 대갓집 만머느리감이지.....”.<sup>31)</sup>

위 부분은 아버지 감판사가 경희의 결혼에 관한 생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희 아버지는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친구의 아들을 신랑감으로 찍찍어 놓고 혼사를 서두르지만 경희가 공부를 마치고 결혼 하겠다고 선언하자 좋은 혼처를 놓칠까 억지로라도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경희가 결혼을 거부 하는 것은 딸을 유학 시킨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철원은 딸을 공부 시킨 것에 대해 후회를 하지만, 경희가 신교육을 받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지런히 일하여 남들의 모범이 되는 것을 보고 속으로 기특하게 생각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는 구세대 남성이 신여성을 보는 시선으로, 근대화 초기 남성들이 신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일반적인 남성은 신여성이 가정에서 지혜롭게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상적인 여성이라 생각하였다.

30) 다시 말해 남성이 요구한 진정한 신여성이란 “가정에 있어서는 아내요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다하면서, 그러나 가정적으로 전혀 붙잡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소속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그러한 여성”, 즉 사회적 직업과 가정에서의 현모양처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슈퍼우먼이었다. 결국 근대의 시작은 가정에 갇혀있던 여성들을 공적인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지만 여성의 자리는 가정 내에서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고정된 성별분업 관념이 확고한 가운데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성 자신에게 감당하기 힘든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고옥경, 『일제시기 남성지식인층의 여성인식 연구』,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4년, p.36.

31) 이상경, 『나혜석전집』, 앞의 책, p. 93.

다음으로氷心の「두 가정」에서는 일인칭 화자의 사촌오빠 三哥와 그의 친구인 陳華民 등 두 명의 남성이 등장한다.<sup>32)</sup> 사촌오빠 三哥의 부인 亞茜는 당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제시된 현모양처의 모습이며, 일과 가정을 모두 완벽히 해내는 여성으로 남성들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신여성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陳華民은 陳부인의 잦은 외출과 가사의 소홀로 삶의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가정과 사회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낸다.

“집에 돌아와 보면 집안 꼴은 형편없이 어질러져 있고, 자식들은 울고 짜고, 정말이지 날 몇 배는 더 우울하게 만들어. 그래도 집사람은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고 ‘여권’인 ‘평등’이니 ‘자유방임’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지껄여대네.....이러니 집안 형편은 날로 어려워 가고, 자식들은 나날이 버릇없이 저 가다보니 내가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을 수 없겠나!”<sup>33)</sup>

이는 陳華民은 무너져 가는 자신의 가정을 친구에게 얘기하는 장면으로, 화목한 가정을 꿈꾸었던 남편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편의주의적인 여권평등사상을 외친 아내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 이에 가정에 안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며 술에 의지해 살며, 또 친구의 화목한 가정을 보고 자신의 가정과 비교하며 더욱 괴로워한다.

“자네 집에 와서 자네 아이들과 자네 가정생활을 보면 우리 집과 비교해서 더 괴로워진다네. 그러니 차라리.....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흐느껴 울기만 했다.<sup>34)</sup>

氷心은 陳華民의 시선을 통해 모범적인 신여성 亞茜와 구세대 여성인 陳부인을 대비시켜, 가정 내에서 주부의 중요성과 가정의 화목이 남자의 사회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다. 이렇듯 「두 가정」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신여성 亞茜를 긍정적인 신여성의 표본으로 생각하였으며, 이것은 氷心이 생각하는 신 여성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중국 근대 초기 남성들이 바라 본 신여성에 대한 생각은 그 당시 구세대 여성들이 신여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어느 정도 유사점을 보인다. 당시 남성들이 제시한 이상적인 신여성은 현모양처로서의 여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신여성들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부인으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국가에 공헌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IV. 教育을 통한 女性主體 形成 過程

##### 1. 經濟 主體로서의 女性

1920년대 신여성이 출현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을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하자면 교육과 종교, 그리고 직업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인 교육은 근대 사회로 이행하면서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하나이다. 다음으로 종교는 서양 선교사를 통해 전달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32) 三哥와 陳華民은 모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유학생활을 하다 귀국한 진도양양한 엘리트였다. 그러나 그들의 귀국 후의 삶은 천지차이로 달라진다. 三哥는 비록 사회적 지위와 월급 수준이 陳華民만큼은 못하였지만 현모양처와 결혼 해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티 없이 자란 아이의 아버지로 등장한다. 이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三哥는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전통적인 가장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33) 好容易回到家里, 又看見那凌亂无章的家政, 儿啼女哭的聲音, 真是加上我百倍的不痛快. 她總是不听, 并且說我不尊重女權、‘不平等’、‘不放任’种种誤會的話. 因此經濟上一天比一天困難, 儿女也一天比一天放縱, 更逼得我不不得出去了! 高玉琪, 『現代文學名家名作文庫』, 「兩個家庭」, 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年, p. 425.

34) 不過我一到你家, 看見你的儿女和你的家庭生活, 相形之下, 更使我心中難過, 不如……’以下也沒說什麼, 只有哭泣. 高玉琪, 『現代文學名家名作文庫』, 「兩個家庭」, 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年, p. 427.

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종교 이외에 신여성들이 근대 경험을 할 수 있고, 여성 지위의 중요한 수단으로 직업 선택이었다.<sup>35)</sup> 이는 경제 주체로 서려면 교육을 통해 직업을 가져야 하고, 여성이 경제적인 주체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신여성』만을 보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시 사회에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여성도 적당한 직업을 구해 자기의 의식주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적 목소리는 줄곧 커져만 갔다.<sup>36)</sup>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남성 중심의 봉건 종법제도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만들어 여성의 경제력을 빼앗고 가정 안에서 오로지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부속물로 만들었다. 즉 여자는 신체의 자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의 권리마저 보장 받지 못했는데, 정치적·경제적 자유는 물론 혼인의 자유 및 교육의 자유도 없었다. 이에 나혜석과 氷心은 이러한 남성 우월적인 남성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면 여성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여성이 교육을 통하여 경제 주체로서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사회에 대한 도전이었다.

「경희」와 「두가정」에서 등장하는 여성은 당시의 일반적인 여성형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운데, 남성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여성이다. 이에 경제 주체로서 서려면 여성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먼저 경희에 등장하는 사돈마님의 예이다. 사돈마님은 ‘여자는 시집이나 가버리면 그만이지, 공부는 많이 해 봐야 계집애 버리는 일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사돈 마님이 김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학생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경희가 경제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다.

“좀 가르치면 어디든지 그렇게 쓸데가 있더구먼요. 그뿐 아니라 그 점잖은 일본사람들에게도 어찌 존대를 받는지 몰라요. 그 애가 왔단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감독이 일부러 일전에 또 찾아왔어요. 일 본서 졸업하고는 기어이 자기 회사의 일을 보아 달라고 하더래요. 처음에는 월급 천오백 냥은 쉽대요. 차차 오르면 3년 안에 이천오백 냥을 받는 다는 데요. 다른 여자는 제일 많은 것이 칠백씩 냥이라는 데 아마 그 애는 일본까지 가서 공부한 까닭인가 보아요.”(중략)

“내가 여학생을 잘못 알아 왔다. 정말 이 집 딸과 같이 계집애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어서 우리 집 에 가서 내외시키던 손녀딸들을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꼭 결심을 했다.”<sup>37)</sup>

위의 예문에서 김 부인은 경희가 지난해 배운 재봉틀 기술과 일본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경력 덕분에 ‘존경’도 받게 되고 높은 월급을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sup>38)</sup> 이것은 여성에게 경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이처럼 나혜석은 여성도 배우면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 주체로서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나혜석이 여성 교육의 필요성으로 경제 능력 확보를 들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혜석은 일본 유학 중에 아버지가 결혼을 이유로 더 이상 학비를 대주지 않겠다고 하자, 일시 귀국하여 교직 생활을 하며 1년간 학비를 모아 다시 일본으로 유학 갔던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나혜석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

35) 나영진, 『1920-30년대 신여성의 주체적 근대 실천과 섹슈얼리티 담론』, 계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7년, p. 13~17.

36)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 연구팀,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년, p. 266~267.

37) 이상경, 『나혜석전집』, 앞의 책, p. 84~86.

38)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돈마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생각으로 듣다가 ‘벽에 걸린 수’와 ‘설 새 없이 바퀴 구르는 재봉틀 소리’를 직접 확인하고는 생각을 바꾸게 된다. 그래서 ‘내가 여학생을 잘 못 알아왔어. 정말 이 집 딸과 같이 계집애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어서 우리 집에 가서 내외시키던 손녀딸을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윤인경, 『나혜석 문학의 여성인식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년, p. 40~42.

기 때문이다.

다음 중국은 5'4운동 이후 남녀의 인권평등이란 관점에서 남녀의 직업 평등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기초로 중시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工讀互助團, 留法勤工儉學運動, 각종 직업학교의 설립, 여자합자(合資)의 상공업·은행 및 공장의 설립 등이 시도 되었다.<sup>39)</sup> 이는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氷心 또한 여성 해방의 우선 조건으로 경제적 독립을 꼽고 있다. 「두가정」에 나오는 陳華民의 아내 陳夫人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여성으로, 결혼한 이후에도 이전의 생활습관을 고치지 못해 집안일이란 모두 하녀에게 맡겨둔 채 접대와 놀음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陳華民이 죽자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이때 나는 陳부인이 생각나서 물었다. “천선생 식구들은요?” 셋째오빠는 “남방으로 간단다. 듣자하니 그녀의 경제 형편이 무척 어렵다는 구나. 빚도 다 갚지 못했다는데, 아이들은 어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모르겠구나.”하고 말했다. 어머니는 “어쨌든 그 여자가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 안 그러면 자립이라도 할 수 있으련만. 하지만 친정이 부자라니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진 않겠지.”하고 말씀 하셨다. 셋째 오빠가 웃으며 말씀 하셨다. “형제에게 의지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의지 하는 것만 못하죠!”<sup>40)</sup>

陳부인은 남편에게 의지하여 살다가, 남편이 죽자 경제능력을 상실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형제들이 있는 남쪽으로 간다. 여기서 그녀는 경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관념도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에 어머니는 여성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자립을 할 수 없음을 꼬집으며,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처럼 나혜석과 氷心은 여성도 교육을 통하면 경제 주체로서 설 수 있고,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2. 賢母良妻로서의 女性

근대 초기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녀 교육의 기회균등이 제창되고, 여성 교육은 가정과 사회·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성 교육의 목표는 현모양처의 자질을 기르는 것이고, 그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었다.<sup>41)</sup>

그러나 나혜석은 봉건시대의 ‘현모양처’니 ‘온양유순’이니 하는 전통적인 부덕이란 남성중심사회가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녀는 이상적인 여성이란 지식과 기예가 있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식으로 분별할 수 있고, 자기의 개성을 발하는 자각을 가지고서, 현대적 사상·지식 및 품성에 대하여 그 시대의 선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2)</sup> 이는 나혜석이 가지고 있는 신여성의 표본으로, 기존의 현모양처와는 차별화 된 새로운 현모양처 상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전반적인 사회 개조론의 중심에 생활개조론이 있었는데, 가정 개조론은 가사 노동의 합리화, 부역의 의복개선,

39) 김은희 외 4인 공저, 『신여성을 만나다.-근대초기 한·중·일 여성 소설 읽기』, 새미, 2004년, p.50

40)這時我想起陳太太來了，我問：“陳先生的家眷呢？”三哥說：“要回到南邊去了。聽說她的經濟很拮据，債務也不能清理，孩子又小，將來不知怎麼過活！”母親說：“總是她沒有受過學校的教育，否則也可以自立。不過她的娘家很有錢，她總不至於十分吃苦。”三哥微笑說：“靠弟兄總不如靠自己！”高玉琪，『現代文學名家名作文庫』，「兩個家庭」，北京：當代世界出版社，2004年，p. 427.

41) 당시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제시된 현모양처는 일과 가정생활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는 여성상이었다. 여성은 직업을 가졌다하더라도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고, 이는 대부분 지식층 여성들 자신도 이를 이상형으로 추구 하였다. 이배용, 「일제하 여성의 전문적 진출과 사회적 지위」, 국사관논총 83호, 1999년, p. 37.

42) 윤인경, 『나혜석 문학의 여성인식 연구』, 앞의 논문, p. 27.

합리적인 가계비 지출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경희의 소제법(掃除法)은 전과는 전혀 다르다. 전에 경희의 소제방법은 기계적이었다. 동쪽에 놓았던 제기며 서쪽 벽에 걸린표주박을 끌고 문질러서는 그 놓았던 자리에 그대로 놓을 줄만 알았다. 그래서 있던 거미줄만 없고 쌓였던 먼지만 털면 이것이 소제인줄만 알았다. 그러나 이번 소제 방법은 다르다. 건조적(建造的)이고 응용적이다. 가정학에서 배운 질서, 위생학에서 배운 정리, 또 도화(圖畵)시간에 배운 색과 색의 조화, 음악 시간에 배운 장단의 음률을 이용하여, 지금까지의 위치를 전혀 뜯어 고치게 된다. 43)

신여성인 경희가 청소하는 장면이다. 이처럼 경희는 청소 방법에 있어서도 ‘가정학’·‘위생학’·‘미술학’·‘음악’과 같은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나혜석은 여성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가사노동의 수행을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사노동을 보다 잘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을 경희의 행동을 통해서 설득하고, 특히 노동을 자발적으로 수행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즐거움을 향유하는 구체적 행동을 보여 줌으로써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44)

氷心은 사회에서 자신의 지명도나 엘리트로서의 지도자적인 신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고, 문학으로 자신의 사상과 관점을 전달하려는 자세로 여성들을 계몽·교육시키고자 했다. 氷心역시 여타의 5·4시기 신문화 운동가들처럼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교육을 받고 법률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을 인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지 氷心은 제대로 교육받은 현모양처가 이상적으로 꾸민 가정 안에 모든 사회적 역사적 문제를 풀어갈 씨앗이 잠재해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氷心은 「두가정」에서 亞茜의 예를 들어 현모양처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亞茜는 단정한 주부이자, 교육적인 어머니이며, 남편의 사업에 대한 이상적인 동반자일 뿐 아니라, 아울러 개인적으로 번역과 저술을 통한 문화적 소양을 갖춘 여인이다.

방을 들어오면 창 밖에 녹음이 가득 드리워져 있고 서양식 의자와 탁자 몇 개, 피아노 한 대, 골동품 몇 개, 화분 몇 개, 그림과 사진 몇 장이 여기저기 장식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단정하고 우아 하였다. 우측 문을 열면, 안에 몇 개의 책장이 있는데 중국 서적과 서양 서적이 가득 싸여 있다. 45)

이는 주부가 살림을 잘 해서 알맞은 가구의 배치며, 장식품 등 안락한 집안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처럼 주부는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노력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亞茜는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면서 아울러 ‘賢母良妻’의 전통을 계승한 인물이다. 氷心이 「두가정」에서 부각시키고자 한 것은 이 소설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왔던 강연내용으로 “가정의 행복과 고통이 남자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氷心이 주장한 현모양처는 가정 내에서 주부로서 소임을 다하고, 이로써 가정 밖에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일 줄 아는 여성이 명실상부한 현모양처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여성도 신교육을 받아서 결혼 후에는 가정 내부의 제반사항을 개혁하여 봉건적인 사고의 틀에서 깨어나 남편을 돕고 격려하며 주부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아갈 것을 이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氷心이 추구하는 현모양처는 가정 내에서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면, 나혜석은 배운 지식을 가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이것이 사회와 민족에 공헌하는 길이라는 좀 더 혁신적인 현모양처 상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두 사람의 현모양처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들 모두 교육을 통해 현

43) 이상경, 『나혜석전집』, 앞의 책, p. 96.

44) 송명희, 「이광수의 「개척자」와 나혜석 「경희」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문학』, 1995년, p. 116.

45) 進到中間的屋子，窗外綠蔭遮滿，几張洋式的椅桌，一座鋼琴，几件古玩，几盆花草，几張圖畫和照片，錯錯落落的點綴得非常靜雅。右邊一个門開着，里面几張書櫥，壘着滿滿的中西書籍。高玉琪，『現代文學名家名作文庫』，「兩個家庭」，北京：當代世界出版社，2004年，p. 422.

모양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V. 近代初期 女性の 限界

신여성들은 자기도 근대적 주체로서 호명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근대의 평등과 자유를 누릴 수 개인주의의 담론에 매혹되어 있었다. 그들이 주장한 남녀평등은 ‘가족 내의 여성’이 아닌 ‘사회 속의 개인’을 우위에 두었다. 그러나 그 당시 신여성은 봉건가정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경희의 경우 경희는 신교육을 받아 결혼은 주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버지가 정해놓은 혼인을 반대 하지만, 그 길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전통대로 자신을 속이면서 순응한다면 겉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을 기만 하면서 안락함을 택하는 것이 정말 편안한 것인가, 전과 같이 살다가 죽는 것이 정말 편안한 것인가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희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

나 같은 것이 무얼하나. 남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아아 과연 사람 노릇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남자와 같이 모든 것을 하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닐 터이다. 사천 년 내의 습관을 깨뜨리고 나서는 여자는 웬만한 학문, 여간한 천재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46)

경희도 조선사회에서 살아 온 여자이며, 조선의 인습에 문혀 살아 왔기 때문에 두렵고 사회에 도전하는 것이 자신 없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나혜석이 제시한 신여성상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중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비록 신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나혜석 또한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역할 분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그 역할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진정으로 평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신여성들은 자신들이 배운 지식을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미 그 자체로 사회, 민족을 살리는 일로 대접 받았다. 그러므로 배운 신여성일지라도 가정 내에서만 능력을 발휘해야만 했던 여성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7) 즉 이는 나혜석 개인의 한계이기보다는 그 이상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시대적 한계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반면 氷心에 의해 창조된 여성은 말을 삼가하고 조용한 성격이면서, 삶의 고통을 자기 내부로 향해 참아내는 강한 인내심을 갖춘 여성이다. 또한 참을성이 많으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성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내면화하고, 남성에게 존재확인, 삶의 원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학벌·문벌·미모를 갖춘 현모양처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 스스로 자각적으로 찾아낸 진정한 이미지로 보기는 어렵다.

이 또한 봉건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재생산된 여성의 이미지로, 氷心은 여성이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집단인 가정을 경영하는 주체자로 보고, 남성과 다른 면에서 국가에 공헌하는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남성이 사회에 나아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공헌이라 한다면, 여성이 남자들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행복한 가정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국가에 대한 간접적 공헌이라는 것이다. 氷心이 추구하는 여성은 이전의 전통에 얽매어 그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수단으로 전락한 피동적 존재도 아니요, 그렇다고 자아정체성을 찾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여권운동을 부르짖는 열혈 페미니스트도 아니다. 남자가 중심이 되는 전통 가정관은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남녀가 평등한 위치에서 가족에게 봉사할 수 있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여

46) 이상경, 『나혜석전집』, 앞의 책, p. 100.

47) 류현영, 『나혜석 서사 연구』, 인하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년, p. 24.

성이 바로 그녀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이다.<sup>48)</sup>

氷心은 여성이라는 성별에 대한 사회의 불공평하고 억압적인 인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앞에 놓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삶의 구조를 제대로 읽어내고 소설로 형상화하지 못했다. 따라서 주인공이거나 화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세계를 경험하는 현실적인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소설 속에 많은 여성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억압적인 현실을 폭로하기 보다는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氷心에 의해 창조되고 정답으로 제시된 여성의 정체성은 가부장적인 문화에 의해 주조되고 주입된 철저한 타자성의 이미지로 여성들 스스로 여성다움의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구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나혜석과 氷心이 그린 근대 신여성상은 남성에게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인 존재로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고, 좀 더 근대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가정안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가정 내의 문제도 구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IV. 結論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한국과 중국은 식민지와 반식민지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근대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에 여성도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등장하였고, 이들 신여성들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여성해방론을 전개하였다.

나혜석과 氷心은 근대 초기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써, 봉건적인 가정에서 여성이 얼마나 불합리 한지를 깨닫고, 작품을 통해 가정문제·여성 교육문제·남녀평등 문제·경제적 독립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나혜석이 주장한 이상적인 여성이란 지식과 기예가 있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식으로 분별할 수 있고, 자기의 개성을 발하는 자각을 가진 여성이다. 또한 경희처럼 신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느질도 잘하고 부엌일도 잘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배운 공부를 생활에 적용시킬 줄 아는 기존의 현모양처와는 차별화 된 신 현모양처 상을 제시하였다.

氷心이 주장한 신여성은 亞茜와 같이 가정 내에서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남성과 동등한 위치와 권리를 찾아내는 여성이지, 여권을 부르짖으며 가정을 버린 채 사회로 나아가는 여성은 아니었다. 이에 氷心이 여성 교육을 강조한 것도 여성이 결혼을 한 후 가정 내의 봉건적인 사고를 깨트리고, 남편을 도와 주부로서의 일을 성실히 하고 순종적이며 자녀를 잘 교육 시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氷心은 항상 전통적인 중국의 美德을 갖추어 가정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현대식 교육을 잘 받아 가정 내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文才를 겸비한 여자를 동경하였다.

이와 같이 氷心은 가정 내에서 현숙한 여성의 역할만을 강조하였다면, 나혜석은 배운 지식을 가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이것이 사회와 민족에 공헌하는 길이라는 좀 더 혁신적인 신여성 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작가가 제시한 근대적 여성상은 가부장적인 문화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여성다움의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구속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여성은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역할 분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여성상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봉건적인 사회에서 남녀차별이 고정적인 성별분업에서 기인한 것이며, 여성 스스로 주체성을 가진 더 근대적인 여성상을 만들어 내거나 제시하지 못한 채 가정 내에서의 역할만을 강조한 여성주의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작가 개인이 뛰어넘지 못한 시대적인 한계이며 시대적인 한계이다.

그러나 나혜석과 氷心은 당시 소설을 통해 여성문제를 여러 각도로 비춰보면서, 근대화 초기 여성이 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여성상을 제시하였고,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근대 여성운동의 문을 열었다

48) 黃允貞, 『氷心の 初期 短篇小説에 나타난 女性形象 研究』, 淑明女子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06年, p. 59.

는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

## 參考文獻

### 저서류

- 卓如, 『冰心文集』, 福州:海峽文藝出版社, 1999  
高玉琪, 『現代文學名家名作文庫』, 「两个家庭」, 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이상경편집, 『나혜석전집』, 서울:대학사, 2000  
嚴家炎지음, 박재우역, 『중국현대소설유과사』, 청년사, 1997  
권영민, 『한국현대 문학사 I』, 서울:민음사, 2008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 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 푸른역사, 2004  
김은희 [외]공저, 『신여성을 만나다 : 근대 초기 한, 중, 일 여성소설 읽기』, 새미, 2004  
문옥표의 지음, 『신여성』, 청년사, 2003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 연구팀,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李培鎔, 「일제시기 신여성의 개념과 연구사적 검토」, 韓國外國語大學校史學研究所12호, 2000  
이상경 지음, 『인간으로 살고 싶다 : 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0  
쥬디스키건가디너, 김열규외 역,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조세핀 도노반 지음, 김익두·이월영 옮김, 『페미니즘 문학』, 서울:문예출판사, 1993  
최혜실 지음,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 논문류

- 고옥경, 『일제시기 남성지식인층의 여성인식 연구』,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4  
김길연, 『나혜석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은희 외 4인 공저, 『신여성을 만나다.-근대초기 한·중·일 여성 소설 읽기』, 새미, 2004  
나영진, 『1920-30년대 신여성의 주체적 근대 실천과 섹슈얼리티 담론』, 계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7  
呂美頤·鄭永福, 『中國婦女運動(1840~1921)』, 河南人民出版社, 1990  
류현영, 『나혜석 서사 연구』, 인하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  
서재원, 『나혜석 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5권, 2005  
서은하, 『신여성 나혜석의 근대적 자아 정체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申昌順, 『韓·中 小說의 女性形象 比較研究』, 成均館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4  
윤인경, 『나혜석 문학의 여성인식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유인순, 「韓中小說에 나타난 女性의 正體性」, 韓中人文科學研究會권 7호, 2001  
趙璟嬉, 『冰心 소설과 페미니즘』, 중국어문논총, 16권, 1999  
黃允貞, 『冰心の 初期 短篇小説에 나타난 女性形象 研究』, 淑明女子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06  
金垠希, 「1920년대 중국여성문학과 대중매체」, 『中國語文學誌』 11권, 중국어문학회, 2002  
김수진, 「신여성담론 생산의 식민지적 구조와 「신여성」」, 『경제와 사회』 69권, 한국산업사회학회, 2006  
박용옥, 「1920년대 신여성 연구」, 『여성연구논총』,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01  
朴恩京, 「冰心 文學에 反映된 女性觀」, 中國語學論叢, 1995  
송명희, 「이광수의 「개척자」와 나혜석 「경희」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문학』, 1995

- 엄미옥, 「근대 소설에 나타난 여학생 연구」,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 유련화, 「中國近代의 女性先驅者秋瑾의 女性解放思想과 革命活動」, 『中國史研究』 49호, 중국사학회, 2007
- 윤혜영, 「20세기 중국 신여성의 고뇌 : 혁명인가 여권인가」, 『성평등 연구』 10호, 카톨릭대학교 성평등 연구소, 2006
- 이상경, 「여성작가 소설에서 여성상이 드러나는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과 여성』, 아세아문화사, 2000
- 이명선,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2003
- 이송희, 「신여성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 『여성연구논집』 제17집, 2006
- 이배용, 「일제하 여성의 전문직 진출과 사회적 지위」, 국사관논총 83호, 1999
- 중화전국부녀연합회 편, 박지훈외 2인 공역, 『중국여성운동사 상』, 한국여성개발원, 1991
- 진재교, 박의경 책임편집,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청어람미디어, 2004
- 崔銀晶, 「論中國現代女作家作品中的女性性愛意識」, 中國語文學誌 10, 2001
- 乔以钢, 『低吟高歌-20世纪中国女性文学论』, 南开大学出版社, 1998
- 陸文彩, 「冰心·丁玲·蕭紅與女性文學」 『遼寧師範大學現代文學研究』, 1988
- 許懷中, 「博大慈愛和晶瑩透亮的心-訪冰心同志」, 『散文世界』, 1989
- 吳青, 「我媽媽冰心一天」, 『作家通訊』 第2期, 1992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Formation of New Women in the Korean and Chinese Novel at the Beginning of Modern Times**

- Focus on Na Hye-Seok's 「Kyoung-Hee」 and BingXin's 「Two homes」 -

Son Mi-Ryung

Korea and China get into modernization through the situation of a colony and semicolonialism. New women who is educated appear in this moment and they argue not only impartiality between men and women, but also women's liberation. Na Hye-Seok and BingXin, as new women instructed under the new education system in the beginning of modern times, realize that the home under feudalism is unreasonable, and they unveil the problems about home, women education, equality of sexes, financial independence. Na Hye-Seok indicate a new portrait of wise mother and good wife different from existing one. And BingXin present a new portrait of new women as a dedicated and loyal wife. The male superiority, a social trend at that time, still occupies dominant status. So, the women need to fight for own liberation through getting over conflicts and frustrations. But they finally expose the limitations of womanism emphasizing the roles in a home. Even though they fail to bring up a more modernistic women's image, it is a limitation of the times that a woman writer cannot jump over. They deserve to praise beginning modern women's movement through the stories.

key word : Na Hye-seok, Bing Xin(冰心), new women, 「Kyoung-hee(瓊姬)」, 「두가정(兩個家庭)」